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 및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타당화 연구

김 정 미* 임 회 선 허 성 호

한솔교육 행복한부모아이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와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의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22개 어린이집에 소속된 만 1~6세 사이 영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 1051명이었다. 연구절차는 검사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문항반응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 선정된 문항에 대해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PSOC가 총 15개 항목 2개 요인구조, PAI는 14개 항목 2개 요인구조가 한국에서는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각 검사의 신뢰도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한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효능감과 스트레스 검사 요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공인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검사별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에 따라 본 검사들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효능감과 배우자 양육협력 정도를 측정하기에 타당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주요어 : 양육효능감, 배우자 양육협력, 사회적지지,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 교신저자: 김정미, 한솔교육 행복한부모아이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E-mail: jeongmeex@eduhansol.co.kr

부모가 어떠한 가치관, 양육 목표 및 태도, 신념을 가지는가는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 발달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다(Darling & Steinberg, 1993; Luster, Rhoades & Hass, 1989).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육효능감이란 양육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비롯한 부모의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Bugental, Blue, & Cruzcosa, 1989; Teti & Gelfand, 1991). 이는 부모로 하여금 부모 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인지적 요소라 할 수 있다(성지현, 백지희, 2011; Coleman & Karraker, 2003).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 능력(Bohlin & Hagekull, 1987)과 행동적 발달 수준(Coleman & Karraker, 2003) 및 과잉행동(Mash & Johnston, 1983), 그리고 영유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Bornstein, 1988) 등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 발달 등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컨대, 부모가 양육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녀에게 반응적이고(김정미, 유제민, 2012; Unger & Wandersman, 1985), 민감하며,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이었으며(Teti & Gelfand, 1991), 아동측면에서는 효능감이 높은 부모를 둔 경우 아동의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행복감 및 발달수준과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영옥, 조남숙, 2012; 방은정, 성지현, 2013; 이경하, 서소정, 2012; Ardel & Eccles, 2001; Teti & Gelfand, 1991). 결론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기질이 까다롭더라도 아동과 민감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끌었다(Teti & Gelfand, 1991), 이에 반해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아동의 행동에 대해 덜 민감하고, 부모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하며, 통제적이고,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임으로써 아동과의 관계는 더욱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숙재, 1997; Luster & Kain, 1987). 한편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들은 높은 부모에 비해 부모 역할 면에서 수동적 대처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자녀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일상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주로 비판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 Karraker, 1997;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Teti & Gelfand, 1991), 더불어 효능감이 낮은 부모의 아동들은 사회정서발달과 학업성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ndura, Barbaraneli, Caprara, & Pastorelli, 2001).

이와 같이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은 자녀의 발달수준에 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유아기 아동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요인으로서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양육효능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평가하는 내용 또한 다를 수 있다. 예컨대, Coleman과 Karraker(1997)는 양육효능감

을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는데, 첫째, 구체적인 양육과제에 초점을 두어 부모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과 기대감을 평가(task-specific)하는 요인, 둘째, 구체적인 양육과제를 비슷한 영역으로 묶고 각각의 영역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평가(domain-specific)하는 요인, 셋째,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온 방법으로 일반적인 양육의 유능감을 평가(domain-general)하는 요인이다. 전반적인 유능감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도구로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문항으로 구성된 양육유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가 있다. 이 척도는 양육효능감과 양육만족감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서,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화 연구를 실시한바 있다. 예컨대, 호주표본에서는 원 척도의 2개 요인과 함께 부모역할에 대한 흥미도 요인이 추가되어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중국표본에서는 원 척도와 동일하게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Rogers & Matthews, 2004; Ngai, Chan, & Holroyd, 2007). 그밖에 Gilmore와 Cuskelly(2009)의 연구에서도 PSOC(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Johnston & Mash, 1989)가 양육효능감, 양육만족감, 양육흥미도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사용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신숙재(1997)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PSOC를 번안·수정하여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연구에서도 이를 근거로 다양한 연령의 대상자에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척도의 구성 요인수와 문항수의 산출 근원이 명확하지 않으며, 적용 대상 아동 연령도 타당

화 대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아동의 발달 수준 및 요구되는 발달과업에 따라 부모가 직면하는 양육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상 아동연령에 적합한 타당화된 척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편,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부모 변인으로써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인이 사회적 지지이다(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Cohen, Mermelstein, Kamarck, & Hoberman, 1985; Sim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사회적 지지란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모에게 있어서의 사회적 지지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하도록 정서적 지지 또는 양육을 위한 도구적 지원을 줌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 할 수 있다(서혜영, 1991). 그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의 지원은 어머니의 적응과 자녀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mmons, et. al., 1993; Unger & Wandersman, 1988). 즉 어머니가 주 양육자일 경우, 배우자인 남편이 부인의 양육에 협력하는 정도는 물리적으로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심리적으로는 어머니 자신이 양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정서적으로 소진되어 있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지지적인 역할을 한다(김정미, 유제민, 2012). 따라서 배우자 협력에 대한 평가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나 목표가 배우자와 비슷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해야 할 때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이라는 기대 그리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Cohen과 동료들(1985)의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의 양육 협력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 간의 헌신과 협력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쓰고,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관여를 가지 있게 여기며, 상대의 양육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고, 부부가 자녀양육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될 때 이루어진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에 대한 지지는 어머니의 대처 능력을 증가시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이와 관련된 신체 증상을 감소시키며(김정미, 유제민, 2012; 전민영, 박혜연, 2011; Thoits, 1986), 자녀의 성역할,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및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강영옥, 조남숙, 2012; 김종훈, 성지현, 2013; 방은정, 성지현, 2013; 이경하, 서소성, 2012). 즉 남편이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적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며 지원이 되어줄 때, 어머니는 자녀에게 따뜻하고, 민감하며,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에 반해 부부 간에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가 다를 경우에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서로 갈등이 많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자녀 행동에 대한 지각은 더욱 부정적이고, 양육태도도 적대적이며(Olweus, 1980), 부모역할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의 정서 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종훈, 성지현, 2013), 자녀의 행동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adds & Powell, 1991; McHale, Freitag, Crouter, & Bartko, 1991). 또한

어머니가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신체 및 정서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졌다(김나현, 이은주, 광수영, 박미라, 2013).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배우자의 협력정도가 어머니로 하여금 안정된 심리정서 상태를 유지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지지로서 배우자의 협력이란 직접적인 물리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 차원이 있는데, 사실 심리적 지원 측면이 더 강조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라 할 수 있다(Belsky, & Vondra, 1989; Frank, Hole, Jacobson, Justkowski, & Huyck, 1986). 여기서 심리적인 지원은 배우자에 대한 심리적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배우자의 도움행동 정도와는 달리 주 양육자(주로 어머니)가 느끼는 배우자(주로 남편)의 지원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느끼는 배우자의 협력 정도는 주 양육자(주로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주 양육자의 정신건강은 다시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김정미와 유제민(2012)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가 지지적이고 협력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정도와 상호작용이 나타나며 이는 자녀의 심리상태와 행동특성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 협력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진다.

Abidin(1988)의 양육협력 검사(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는 배우자의 양육협력을 부모로서 아동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과 관

련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다. 문항들은 배우자가 양육활동을 지원하고 노력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자녀평가 및 자녀문제해결에 대해 주 양육자와 얼마나 잘 의사소통하는지, 그리고 주 양육자의 판단과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등을 측정하는 평가요소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는 신숙재(1997)가 Abidin(1988)의 PAI를 번안·수정하여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양육효능감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양육협력정도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가 직면하는 양육과제와 부모역할 비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적합한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PSOC)와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PAI)에 대해 부모의 영향력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척도의 적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PSOC와 PAI의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둘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PSOC와 PAI의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셋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된 요인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6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051명이었다. 설문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주 양육자가 실시하도록 안내 하였다. 작성자는 어머니가 1000명(95.1%), 아버지가 43명(4.1%), 기타 양육자가 8명(0.8%)으로 주 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95.1%)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4.9세(범위 24~47세)이고, 학력은 대졸 540명(51.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 287명(27.3%), 초대졸 70명(6.7%), 대학원졸 이상 53명(5.0%), 중졸이하 5명(0.5%) 순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37.4세(범위 28~59세)이고, 가족 월수입은 500만원 이상(25.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299만원(21.1%), 300~399만원(19.7%), 400~499(16.6%), 200만원 미만(8.0%)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 분포는 남아가 547명(52.0%)이고 여아가 504명(48.0%)이었다.

측정도구

아래 제시한 측정도구 중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와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는 타당화 대상 척도이고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는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척도이다.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본 연구에서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16문항으로 구성된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기반으로 Johnston과 Mash(1989)가 최종 17문항 2요인으로 개발한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각 2요인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문제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인지 정도 및 효능감을 측정하는 요인과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6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Johnston과 Mash(1989)의 최종 17문항 구성과 국내에서 상용되고 있는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신숙재, 1997)의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 22문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Likert척도의 급간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 사이에 분분하나, 본 연구에서는 급간의 차이가 작수일 경우 중앙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작성자가 매 문항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값이 없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Guyatt & Jaeschke, 1990) 중앙치를 선택할 수 있는 5점 likert척도의 급간으로 수정 채택하여 구성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효능감 요인이 .76, 만족감 요인이 .75이고, 전체 신뢰도는 .79이었다.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가 인식하는 배우자의 부모역할에 대한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과 Brunner(1995)가 개발한 20문항으로 구성된 '양육협력 검사(PAI: Parenting Allianc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

항들은 배우자가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대화하고, 지원하며 협력하는 정도와 배우자가 주 양육자의 양육목표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해주는지에 대한 주 양육자의 인식 정도를 측정한다. 작성방법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완성되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bidin과 Brunner(1995)가 개발한 20문항과 국내에서 상용되고 있는 배우자의 양육협력을 측정하는 척도(신숙재, 1997)의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 23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7이었다.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K-PSI)

한국판 양육효능감 검사와 한국판 양육협력 검사의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Abidin(1995)이 개발한 PSI를 국내에서 정경미, 이경숙 및 박진아(2008)가 표준화한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 확장형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는 만 1~12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역기능적인 양육과 관련된 아동, 부모, 상황적 특성을 평가하는 도구로써 총 1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 요인은 크게 아동영역과 부모영역, 그리고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는 생활스트레스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위 척도 중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영역의 유능감 스트레스와 우울 스트레스, 배우자 스트레스 요인 점수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부모영역 중 유능감 스트레스 요인이 .77, 우울 스트레스 요인이 .83, 배우자 스트레

스 요인이 .80.이고,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5 이었다.

연구절차

문항번역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PSOC)와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PAI)의 한국 타당화 연구를 위해 먼저 Johnston과 Mash(1989)의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17문항과 Abidin과 Brunner(1995)의 PAI(Parenting Alliance Inventory) 20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그리고 번안된 검사 문항의 내용타당도 확인을 위해 1차로 발달심리전공 박사 학위자 1명, 발달심리전공 및 교육심리전공 석사 학위자 3명이 각 문항 번역의 정확성 및 번역 문항 간의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1차 번역본의 검토 결과, 보다 정확한 의미를 내포하면서 문맥에서 매끄럽게 번안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원어민 및 영어전공 관련자 2명이 2차 문항검토를 실시하였고, 검토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2차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2차 완성된 도구를 만 1~6세 사이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24명을 대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어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미가 모호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수정하여 최종 번역본을 완성하였다(용어수정 예, “나는 내 아이를 돌보는 전문성에 대한 나의 기대를 충족한다.” → “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배우자는 아이와 둘만 있는 것을 좋아한다.” → “배우자는 내가 없어도 아이와 함께 잘 논다.” 등).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

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22개 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보육교사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알리고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과는 전화 통화하여 우선으로 본 연구 참여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참여 신청한 기관으로 각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각 기관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최종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는 1764명이었다. 최종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전달하고 기관에서는 유아를 통해 질문지를 가정의 부모에게 전달하였다. 전체 1764부의 질문지가 전달되었으며 그중 1053부(60%의 회수율)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연구 대상 연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응답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하여 최종 1051명의 질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선별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PSOC)와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PAI)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빈도분석,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SEM)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문항분석

한국어로 최종 번역된 문항에 대해 각 검사의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과 전체 척도의 상관계수가 .30 이하인 문항, 그리고 문항제거시의 내적합치도가 상승하는 문항과 부하량 값이 매우 낮거나 요인들에 걸쳐 중복되는 문항을 제거하여 각 척도의 최종 문항을 선별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육효능감 검사에서는 총 7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삭제된 7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2) “부모로서 겪는 어려운 문제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3)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아이가 내 말대로 움직여줄 때, 나는 아이를 잘 다루고 있다고 느낀다.”, 4) “나의 엄마는 나보다 더 준비된 좋은 부모였다.”, 5) “내가 엄마가 되는 것에 더 흥미가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다.”, 7)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한편 양육협력 검사는 총 9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삭제된 9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신기간 동안 남편은 내가 좋은 부모가 될 거라고 자신감을 주었다.”, 2)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부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조한다.”, 3) “배우자와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4) “배우자가 아

이와 놀아주는 것을 볼 때, 나는 배우자에게 더욱 친근함을 느낀다.”, 5) “배우자와 나는 부모로서 좋은 팀이다.”, 6) “나는 배우자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7) “배우자는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월하게 하도록 해준다.”, 8) “배우자와 나는 아이에 대해 표현할 때, 대체로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9) “배우자와 나는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의견이 일치한다.”

탐색적 요인분석

최종 선정된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의 15개 문항과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의 14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회전방식으로는 Kaiser가 제안한 varimax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각 열 내의 부하량의 제곱 값이 최대화하는 방식이어서 직각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문항 간 차이에서 간명도는 낮지만 요인 간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을 통해 같은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 간의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였고, 요인을 산정하는 방식은 고유값을 1로 고정하여 회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PSOC)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따르면 15개 문항의 전체 누적 설명비율은 50.54%였으며, KMO(Kaiser-Mayer-Olkin) 적합성 지수는 .895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Bartlett 검정결과도 유의하게 확인되면서(1753.31, $p < .01$),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2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는데, 제

표 1. 한국판 양육효능감 검사(K-PSOC)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320)

문항	부하량	
	요인1	요인2
1.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786	.140
2.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729	.286
3. 엄마로서 지내온 시간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부모역할이 매우 익숙해졌다.	.708	.172
4.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702	.153
5.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692	.245
6.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664	.352
7.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647	-.006
8.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510	.307
9. 나는 때때로 부모로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199	.723
10.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려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161	.695
11.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347	.679
12. 나의 재능과 흥미는 부모역할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079	.662
13. 나는 매일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174	.641
14. 부모로서의 역할은 나를 긴장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094	.640
15. 내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게 행동 할 수밖에 없었지만 부모로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다.	.245	.626
고유치	4.03	3.55
설명량(%)	26.89	23.66
신뢰도(α)	.86	.82

1요인의 설명량은 26.89%였으며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고, 제 2요인의 설명량은 23.66%였으며,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1요인은 ‘유능감’, 제2요인은 ‘안정감’으로 명명하였다. 문항들의 중복 부하되는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의 상관계수 행렬을 고려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PAI)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따르면, 14개의 문항의 전체 누적 설명비율은 59.094%였으며, 모형의 유의성을 보여주는 KMO (Kaiser-Mayer-Olkin)적합도 지수는 .912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Bartlett 검정결과도 유의하게 확인되면서(2298.77, $p < .01$), 단위행렬이 아니

표 2.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320)

문항	부하량	
	요인1	요인2
1. 배우자는 기꺼이 아이 돌보는 것을 돕는다.	.853	.188
2. 배우자는 아이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갖는다.	.817	.156
3. 배우자는 내가 없어도 아이와 함께 잘 논다.	.813	.145
4. 배우자는 아이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728	.317
5. 배우자는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주며 놀아주기도 한다.	.728	.376
6. 배우자와 나는 아이에 관한 대화를 자주 나눈다.	.652	.333
7. 만약 별거나 이혼을 할지라도 우리부부는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하리라 믿는다.	.544	.368
8. 배우자는 나에게 좋은 부모라고 말해준다.	.194	.783
9. 배우자는 나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아이를 이해한다.	.369	.737
10. 배우자는 내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156	.719
11. 아이가 벌을 받아야 할 때, 배우자와 나는 대개 같은 방식으로 벌을 준다.	.081	.692
12. 아이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배우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	.304	.664
13. 배우자와 나는 아이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한다.	.374	.652
14. 배우자와 나는 아이가 어떤 아이로 컸으면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같다.	.347	.538
고유치	4.40	3.88
설명량(%)	31.40	27.69
신뢰도(α)	.90	.86

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는데, 제 1요인의 설명량은 31.40%였으며,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제 2요인의 설명량은 27.69%였으며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 1요인은 ‘양육참여’, 제 2요인은 ‘의견일치’로 명명하였다.

신뢰도 검증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 및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표집 대상자들 중 서울소재 2개 곳 어린이집에 소속된 117명 아동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117명 중 113명의 응답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5%), 회수된 대상에 대한 검사-재검사 점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내적일치도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을 산출한 결과, 전체 상관계수는 .88이었고 하위요인별로 유능감 요인은 .85, 안정감 요인은 .81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문항 간 내적합치도가 .60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전체 상관계수는 .92이었고 하위요인별로 양육참여 요인은 .90, 의견일치 요인은 .85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문항 간 내적합치도가 .60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결과, 척도의 전체 상관계수는 .79이었고 하위요인별로 유능감 요인은 .73, 안정감 요인은 .71로 나타남으로써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한편,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상관계수는 .80이었고, 하위요인별로 양육참여 요인은 .77, 의견일치 요인은 .76으로 나타남으로써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타당도 검증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표집 아동 1051명을 대상으로 각 척도별 전체 및 하위요인 점수를 개념적 준거변인으로 하여 수

렴 타당도를 분석하였고, 두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정경미, 이경숙, 및 박진아 (2008)의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의 부모영역에 해당하는 하위요인과 전체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렴타당도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PSOC 전체 및 하위요인을 준거로 하여 양육효능감이라는 개념에 얼마나 수렴하는지를 평가하는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모든 상관계수는 .57~.90의 범위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를 입증하였다.

한편,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PAI 전체 및 하위요인을 준거로 하여, 배우자의 협력

표 3.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의 전체 및 하위요인의 상관분석 ($N=1051$)

준거변수	전체	유능감	안정감
전체	1		
유능감	.88**	1	
안정감	.90**	.57	1

** $p < .01$

표 4.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의 전체 및 하위요인의 상관분석 ($N=1051$)

준거변수	전체	양육참여	의견일치
전체	1		
양육참여	.93**	1	
의견일치	.91**	.68**	1

** $p < .01$

이라는 개념에 얼마나 수렴하는지를 평가하는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모든 상관계수는 .68~.93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를 입증하였다.

공인타당도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정경미, 이경숙 및 박진아(2008)의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의 부모영역에 해당하는 하위요인과 전체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의 전체 및 하위요인은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의 유능감 스트레스, 우울 스트레스, 전체 스트레스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검사의 전체 및 하위요인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반면,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는 전체 및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만큼 강화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의 전체 및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내용의 스트레스 수준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의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본 검사와 양육스트레스 검사의 하위요인의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에 공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p < .01$).

한편,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공인타당도 역시 정경미, 이경숙, 및 박진아(2008)의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의 부모영역에 해당하는 하위요인과 전체 점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판 양육협력 검사(K-PAI)의 전체 및 하위요인은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검사

표 5. K-PSOC와 K-PSI 간의 상관분석 (N=1051)

K-PSOC \ K-PSI	유능감 스트레스	우울 스트레스	전체 스트레스
전체	-.48**	-.46**	-.51**
유능감	-.40**	-.37**	-.36**
안정감	-.43**	-.44**	-.51**

** $p < .01$

표 6. K-PAI와 K-PSI 간의 상관분석 (N=1051)

K-PAI \ K-PSI	유능감 스트레스	우울 스트레스	배우자 스트레스	전체 스트레스
전체	-.38**	-.33**	-.51**	-.40**
양육참여	-.42**	-.35**	-.46**	-.40**
의견일치	-.27**	-.24*	-.47**	-.32**

* $p < .05$, ** $p < .01$

(K-PSI)의 유능감 스트레스, 우울 스트레스, 배우자 스트레스, 전체 스트레스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의 전체 및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내용의 스트레스 수준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의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본 검사와 양육스트레스 검사의 하위요인의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에 공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p < .05, p < .01$).

확인적 요인분석

본 검사의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무선으로 표집된 731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

검증결과,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은 기각되었으며($\chi^2 = 503.45, p < .01$), 이는 표집단이 모집단과 동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분석에 활용하는 적합도 지수는 우선, RMSEA값은 .1보다 낮은 값이 자료에 대한 적합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05 이하는 매우 좋은 자료이며, .01 이하는 뛰어난 자료라고 판단한다(Steiger, 1990). 그리고 GFI, AGFI, NFI의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 200 이상에서 .9보다 높으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권세혁, 2005; 양병화, 2006). NN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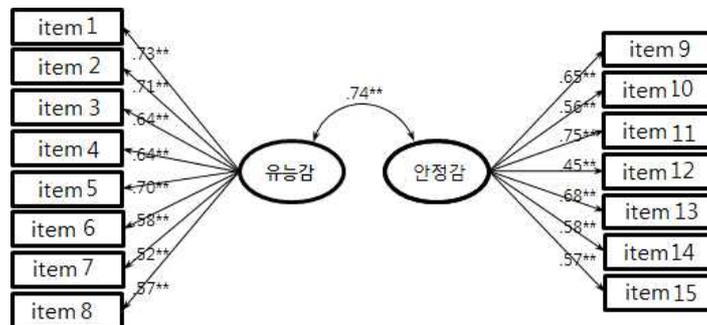


그림 1.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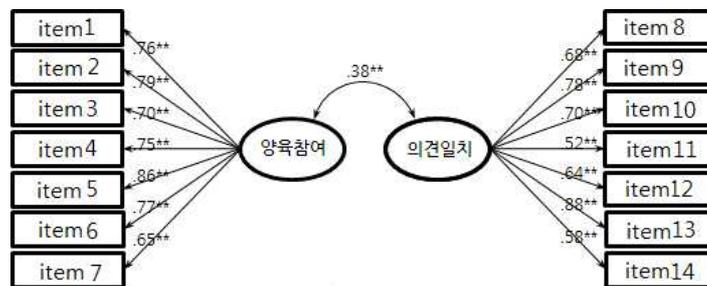


그림 2.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표 7. 한국판 양육효능감 검사(K-PSOC)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비교 (N=731)

적합지수	χ^2	df	GFI	AGFI	RMSEA	NNFI	NFI	CFI
연구모형(1)	503.45**	89	.92	.88	.11	.88	.88	.90
수정모형(2)	272.98**	84	.95	.93	.06	.94	.93	.95
모형1:모형2	230.47**	5	-	-	-	-	-	-

** $p < .01$

와 CFI의 값 역시 .9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Bentler, 1990). 한편, 분석에서 이용한 AMOS 18.0 프로그램은 관측변수간의 상관계수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부하량이 다소 중복되는 문항과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 의하면,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entler와 Bonett(1980)의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통해서 수정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초기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카이제곱차이는 230.47(503.45-272.98)이며, 자유도 5(89-84)를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본 검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수정모형에서 RMSEA는 .06으로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GFI, AGFI, NFI, NNFI, CFI는 .93~.95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

χ^2 검증결과,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은 기각되었으며($\chi^2 = 636.370, p < .01$), 이는 표집단이 모집단과 동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분석에 활용하는 적합도 지수는 절대적합도지수(absolute fit index)와 상대적합도지수(relative fit index)를 모두 활용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 의하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일부 적합성 범위에서 벗어났지만, 수정모형에서는 모두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entler와 Bonett(1980)의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통해서 수정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보았다. 초기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카이제곱차이는 308.24(636.70-328.46)이며, 자유도 4(76-72)를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수정모형에서 RMSEA는

표 8.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비교 (N=731)

적합지수	χ^2	df	GFI	AGFI	RMSEA	NNFI	NFI	CFI
연구모형(1)	636.70**	76	.88	.84	.10	.88	.89	.90
수정모형(2)	328.46**	72	.94	.91	.07	.94	.94	.96
모형1:모형2	308.24**	4	-	-	-	-	-	-

** $p < .01$

표 9. 양육효능감 검사 및 양육협력 검사의 집단별 적합도 지수 비교 (N=731)

적합지수	집단수	집단구분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
아동 연령대	6 집단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이상	모든 적합도 $\geq .90$	모든 적합도 $\geq .90$
아동의 성별	2 집단	남(383) / 여(348)	모든 적합도 $\geq .90$	모든 적합도 $\geq .90$
부학력	2 집단	고졸이하(153) / 초대졸 이상(472)	모든 적합도 $\geq .90$	모든 적합도 $\geq .90$
모학력	2 집단	고졸이하(192) / 초대졸 이상(475)	모든 적합도 $\geq .90$	모든 적합도 $\geq .90$
양육스트레스	2 집단	고(29) / 저(33)	모든 적합도 $\geq .90$	모든 적합도 $\geq .90$

* 측정된 적합도지수: GFI, AGFI, RMSEA, NNFI, NFI, CFI

* 양육스트레스 집단은 평균점수를 기점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

.07로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GFI, AGFI, NFI, NNFI, CFI는 .91~.96으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아동의 연령대(6개 집단), 아동의 성별(2개 집단), 아버지의 학력(고/저 집단), 어머니의 학력(고/저 집단), 양육스트레스(고/저 집단)에 따르는 확인적 요인 결과 차이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와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에 대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한국 대상에 적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와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

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2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칙도와 동일한 결과였다(신숙재, 1997; Johnston & Mash, 1989).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의 2개 하위요인 중 첫 번째, ‘유능감’ 요인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하고, 부모 역할을 바람직하게 해낼 수 있다는 부모 스스로의 판단과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들이다. 두 번째 요인인 ‘안정감’ 요인은 부모 역할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안정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들이며, 이 요인의 점수가 낮은 부모는 자녀 양육을 비롯한 부모 역할에 있어 불안감과 좌절 정도가 큰 경향이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한편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는 한국에서는 2개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에서는 원칙도와 다른 요인구조임을 확인한 결과였다(Abidin & Brunner, 1995). 2개 하위요인 중 첫 번째, ‘양육참여’ 요인은 주 양육자가 생각하기에 배우자가 양육행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부

부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갖는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들이며, 두 번째 요인인 '의견일치' 요인은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대나 목표가 비슷하고, 서로의 양육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자녀양육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에 대해 주 양육자가 인식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문항들이다.

둘째,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와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PSOC 15문항과 K-PAI 14문항은 각각 전체의 내적합치도와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가 .80 이상으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각 요인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4주후에 실시한 재검사결과 K-PSOC와 K-PA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점수와 하위요인별 점수에 있어 .70 이상의 상관을 나타내어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한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2008)와 상관분석 결과,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와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 모두 전체 및 하위요인은 K-PSI의 하위요인 중 유능감 스트레스, 우울 스트레스, 배우자 스트레스 및 전체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고, 남편으로부터 양육협력을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어머니가 느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유능감이 높고 우울감에 대한 스트레스는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우울,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 등과 정적 관련을 설명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김정미, 유제

민, 2012;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

넷째,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와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으로 추출되었던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각 검사 모형도의 구성 타당도 역시 적절한 수준임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K-PSOC와 K-PAI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주 양육자가 보고하는 배우자의 양육협력 정도를 잘 측정하고 있는 타당하고 안정적인 도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지연 수준은 통제하였으나 그 외 정서적 발달 수준이나 양육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설명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자녀의 양육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전체 중에 95.1%가 어머니로 제한되어 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함께 자녀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양육효능감과 양육협력 검사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써 현재 타당성이 입증된 타 검사도구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선택한 양육스트레스검사(K-PSI)와의 유의한 부적상관은 입증하였으나 상관계수는 .60이하 수준이어서 보다 안정적인 도구 검증을 위해 추후 지속적인 타당성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검사를 위한 대한 타당화연구와 한국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영유아기 부모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효능감에 대한 표준화된 준거를 가진 도구는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추후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효능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임상 장면에서 추후 적절한 서비스 체계로 연결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영유아기에는 부모가 누구보다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인지학습, 의사소통 및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에 있어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협력을 포함한 부모 변인들과 아동발달 간의 상호작용 및 영향력 경로를 분석하여 영유아기 부모, 아동, 그리고 부모와 아동 간 상호작용의 관련성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연구를 수행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강영옥, 조남숙 (201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스트레스, 행복, 창의성에 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139-158.

권세혁 (2005). SPSS활용 다변량데이터분석. 한남대학교출판부.

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김정미, 유제민 (2012). 어머니의 심리적요인, 반응성유형과 장애유아의 중심축발달행동간의 매개효과와 중재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12(2), 55-77.

김종훈, 성지현 (2013).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87-107.

방은정, 성지현 (2013).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연구-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107-127.

서혜영 (1991).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지현, 백지희 (2011). 한국판 양육효능감척도(K-EGSCP)의 타당화연구: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35-150.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경하, 서소정 (2012).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53-77.

- 전민영, 박혜연 (2011). 발달장애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3), 23-33.
-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2008).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 K-PSI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 Abidin, R. R. (1988).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Unpublished scale,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 Abidin, R. R., & Brunner, J. F. (1995). Development of a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1), 31-40.
- Ardelt, M., & Eccles, J. S. (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44-972.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2001). Self 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 Belsky, J., & Vondra, J. (1989). *Lessons from child abuse: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ohlin, G., & Hagekull, B. (1987). "Good mothering": Maternal attitudes and mother infant interac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8(4), 352-363.
- Bornstein, M. H. (1988). Mothers, infants, and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competence.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 4, 67-99.
- Bugental, D. B., Blue, J., & Cruzcosa, M. (1989).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outcomes: Implications for child ab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5(4), 532.
- Cohen, S., Mermelstein, R., Kamarck, T., & Hoberman, H. (1985). Measuring the functional components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73-94.
- Coleman, P. K., & Karraker, K.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 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Dadds, M. R., & Powell, M. B. (1991). The relationship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global marital adjustment to aggression, anxiety, and immaturity in aggressive and nonclinic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5), 553-567.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 Relations*, 216-222.
- Frank, S., Hole, C. B., Jacobson, S., Justkowski, R., & Huyck, M. (1986).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arents' sense of confidence and control and self-versus child-focused grat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348.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 Gilmore, L., & Cuskelly, M. (2009). Factor structure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using a normative sample.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5(1), 48-55.
- Guyatt, G. H., & Jaeschke, R. (1990). *Measurements in clinical trials: Choosing the appropriate approach*. In B. Spilker (Ed.). *Quality of Life assessments in clinical trials* (pp.37-46). New York: Raven Press.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Luster,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3), 301-311.
- Luster, T., Rhoades, K., & Haas, B. (1989).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values and parenting behavior: A test of the Kohn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39-147.
- Mash, E. J., & Johnston, C. (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1), 86.
- McHale, S. M., Freitag, M. K., Crouter, A. C., & Todd Bartko, W. (1991). Connections between dimensions of marital quality and school-age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1), 1-17.
- Ngai, F. W., Chan, S. W. C., & Holroyd, E. (2007). Translation and validation of a Chinese version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in Chinese mothers. *Nursing research*, 56(5), 348-354.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44.
- Rogers, H., & Matthews, J. (2004).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Investig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for an Australian sample. *Australian Psychologist*, 39(1), 88-96.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 Thoits, P. A.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
- Unger, D. G., & Wandersman, A. (1985). The importance of neighbors: The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components of neighboring.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2), 139-169.
- Unger, D. G., & Wandersman, L. P. (1988). The relation of family and partner support to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1056-1060*.
- 1차원고접수 : 2014. 04. 10.
수정원고접수 : 2014. 06. 02.
최종게재결정 : 2014. 06. 05.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the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Jeongmee Kim

Heesun Lim

Sungho Heo

Hansol Education, Happy Parents & Children Research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SOC) and the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 A total of 1051 parents with young children aged 1 to 6 years participa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at the PSOC consists of 15 items and two factors, and that the PAI consists of 14 items and two factors. The each factor from the PSOC and PAI demonstrated clear convergent validity, proper internal consistency, and good test-retest reliability. Also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good model fit for both measures supporting their good construct validities. Furthermore,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Korean versions of PSOC, PAI and K-PSI, suggesting good concurrent validity. In conclusion, the Korean versions of PSOC and PAI appear to be useful tools for assessing parenting efficacy and cooperation among parents with young children.

Key words :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arenting Alliance, Social Suppor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